

고창 '복분자·식초산업 특구' 3년 연장

계획변경안 승인...사업 다변화·기존 규제특례 혜택 적용 복분자 와인 체험시설·농특산물판매장 등 관광 활성화 추진

고창군이 사업추진과 사업비 증액 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했던 기간연장 내용의 '복분자·식초산업특구' 계획변경안이 승인됐다고 17일 밝혔다.

3년이 연장된 '복분자·식초산업특구'는 오는 2026년(2024년 포함)까지 사업 다변화와 함께 기존 규제특례 혜택도 계속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복분자특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고창 복분자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고창 복분자·식초산업특구는 아산면, 삼원

면, 부안면 일원 508만8404㎡ 대상지로 지난 2004년 전국 최초 특구로 지정됐다.

이후 복분자 테마파크(유원지) 조성사업, 복분자 농공단지 조성사업, 복분자 전락식품산업 육성사업 등 21개 세부사업이 완료됐다.

또 복분자 생산재배 지원, 복분자 브랜드 세계화 등 지속적인 사업비 투자를 통해 고창의 여건에 맞게 육성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2020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성과평가에서 '전국 우수 지역특구'에 선정되기도 했다.

군은 신규사업으로 '농촌관광 스타마을 공모사업'을 추가해 고창 복분자 와인을 테마로 다양한 와인체험시설, 지역특산물판매장, 와인전시·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복분자 산업과 관광활성화 계획을 세웠다.

특히 고창 복분자는 전국 생산량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명실상부 전국 1위의 주산지로 '제3호 고창 복분자주', '제35호 고창복분자'가 지리적표시로 등록돼 지역 특산물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특구 계획변경 승인을 계기로 복분자·식초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고창 복분자의 르네상스를 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남원 버스정류장 17곳에 한파저감시설

온열등 등 고령·유아층 사용 많은 시내권 중심 설치



남원시는 추운 겨울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관내 버스정류장 17개소에 '한파저감시설(온열등·사진)'을 설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한파저감시설은 방풍시설 버스정류장 상부에 온열등을 추가로 설치, 열기로 버스정류장 내 높은 보온효과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갑작스런 대설 및 한파 시 시민들의 추위를 녹이는 공간으로써 한랭질환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시는 그간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버스 승강장에 온열의자 및 방풍시설 등 한파 저감 시설을

지속 설치·확충해 왔다.

이번에 설치되는 온열등은 고령자와 유아 등 이용객이 많은 시내권을 중심으로 시범 설치하며 버스 운영시간에 맞춰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가동한다.

향후 한파저감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보완한 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매서운 한파를 피해 더욱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남원시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 4곳 선정

온실 신축·에너지시설·ICT 장비 17억7000만원 예산 확보

남원시 농업기술센터가 전북자치도 공모 '2025년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에서 응모한 4개소가 선정돼 총 17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 공모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청년들에게 스마트팜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온실신축, 에너지시설, ICT 장비 및 재배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2022년부터 사업비 30억8000만원(국비 11억6600만원)을 투입해 청년농 7명을 지원했고, 올해도 전북자치도가 18개소를 뽑는 공모에서 4개소가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

이 밖에도 민선 8기 공약사업 '남원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내년도 스마트팜 보급 누적 250농가(현재 180농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시는 ICT 융복합 확산사업, 시설 원예현대화사업, 원예농가 세미 스마트팜 지원사업, 스마



남원 지역내 스마트팜 원예시설.

트팜 확대보급 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3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사업으로 청년농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며 "나이가 60ha 규모의 농

생명 선도지구 내 청년창업형·임대형 스마트팜과 가공·유통 및 미래농업 복합 문화공간 등을 통해 미래 농생명 산업의 전후추 기지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군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세계문화어울림축제...5개국 문화 체험 부스·푸드트럭 등 운영



10회 구차 세계문화어울림축제

지난 16일 모양성 특설무대에 열린 '제19회 고창 세계문화어울림축제'에서 6명의 다문화자녀와 오찬환(오른쪽 첫번째부터) 고창군체육회장, 조민규 고창군의회 의장, 심덕섭 고창군수, 경우스님, 내빈 등이 함께 무대에 올라 어머니라 언어로 개회선언을 하고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고창군 제공>

고창군가족센터는 지난 16일 고창읍성 특설무대에서 '제19회 고창 세계문화어울림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6명의 다문화자녀가 심덕섭 고창군수, 경우스님 등 내빈이 함께 무대에 올라 어머니라 언어로 개회선언을 했다.

행사는 5개국 세계문화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 부스, 푸드트럭 등 먹거리 부스를 무료로 운영했다.

외국인주민 한국어 골든벨, 다양한 문화 존중 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전시, 모국의 전통춤, 다문화가족 사물놀이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의미있

는 내용으로 기획하여 고창군민과 다문화가족의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유공자 표창에는 석정원파크병원 원대원 이사장, 다문화가족협의회 류동근 씨가 고창군수 표창을, 결혼이민자 임명희, 김정고시 강사 김미아 씨가 고창군의회 의장 표창을, 고창군가족센터 이문희, 황현희 씨가 법اند대표이사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다문화자녀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드린다"라고 밝혔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읍시, 지역 농산물 가공식품기업 지원

22일까지 희망업체 모집...농산물 소비 촉진·식품기업 경쟁력 제고

정읍시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식품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2025년 농식품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희망업체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 ▲스마트 HACCP 지원 ▲창업 식품기업 지원 ▲소규모 식

품소재 및 반가공사업 육성 등으로 구성됐으며 각 사업당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3억원까지 지원이 이뤄진다.

사업 대상은 지역 내 농업 생산자 단체와 식품기업이며 주원료로 전북산 농산물을 30~50% 이상 사용하고 운영 실적이 1~3년 이상이며, 최근 3년

간 평균 매출액이 120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은 오는 22일까지이며 12월 중에 대상자 심사를 거쳐 예비 선정자를 통보하고 내년 1월부터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식품기업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농식품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농업 관련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성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룩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룩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